

김병내 남구청장 “재해, 예외없다” 긴급회의 소집

저지대 아파트 등에 모래주머니 추가 배치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9일 재해대책 긴급회의를 갖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특별 지시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간부 공무원을 소집한 뒤 구청 7층 상황실에서 ‘재해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

해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 남부 지방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전 예방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김병내 구청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인 점을 고려해 비상 상황시 물길의 흐름을 바꾸거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래주머니를 곳곳에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남구는 장마철을 대비해 지난 6월말까지 관내 45개소에 모래주머니 5천500여개를 배치한 상태이며, 이번 추가 지시로 관내 저지대에 위치한 아파트 및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쪽에 모래주머니를 추가로 배치해 침수에 따른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빗물 유속 흐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수관로에 대한 특별 점검을 꾸준히 유지해 온 상황에서 재차 점검을

실시, 관로 주변의 이물질 제거함과 동시에 고무장판 덮개가 우수관을 덮어 침수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자연재해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외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만전의 준비가 최상의 예방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동구, 스마트 보안 서비스 지원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 대상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최근 안전 취약계층인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 등을 타깃으로 하는 주거침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 안전 도어 지킴이’ 이용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최근 ㈜SK유텔스(대표 박진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CCTV 및 비상벨 설치와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서비스 등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 도어 지킴이’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돼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 카메라로 ▲배회자 감지 및 알림 ▲양방향 음성 대화 ▲현관문 출입 내역 확인 기능이 있다. 또한 위급상황 발생 시 모바일 앱 또는 집안에 설치된 비상 버튼을 눌러 보안업체에 출동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여성 1인 점포면 누구나 가능하며, 이달부터 신청서,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메일(jspoona@korea.kr), 팩스(062-608-2922)로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중가의 50% 수준인 9천900원으로 대상자가 되면 최초 1년은 동구에서 매달 8천900원을 지원받아 1천원만 내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성 1인 점포는 최초 1년은 동구가 매달 4만원의 이용료를 보조해 월 4천원으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동구는 추후 사업에 대한 수요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 지원 가구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과 두드림 앱,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062-608-2654)로 문의. /서기만 기자

서구, 상시선별진료소 정비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신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서구 선별진료소는 지난 6월말 일 평균 검사자 수 100명대로 안정세를 보여 야외 임시 음압텐트를 철거하고 실내 검체실에서 검체채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평균 검사자 수가 500명대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향후에도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별진료소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주요 환경정비로는 야외 음압텐트를 재설치해 코로나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검체실 두 곳을 확보해 검체 채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 현수막 및 배너를 교체하고 안내 화살표를 지면에 설치해 민원인들이 입구부터 출구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선별진료소 각 구역의 가시성을 확보해 검사대기시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검사자 수 증가에 대비해 민원인의 불편감이 생기지 않도록 선별진료소 환경 정비를 방문한 민원인이 불편감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신체·건강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신체·건강 프로그램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영양교육과 함께, 축구교실, 볼링교실, 드림워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 프로그램 운영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신체·건강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신체·건강 프로그램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영양교육과 함께, 축구교실, 볼링교실, 드림워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산구 드림스타트는 대한산업보

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를 시작으로 빛고을 국민안전 체험관, 신화 FC, 하남볼링장 등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볼링교실과 드림워킹 프로그램을 마련,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을 높이며 화목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의 변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해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기만 기자

북구,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선정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소매를 걷었다.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2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경제 회복과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으며, 선정된 전국 8개 사업 중 호남권에서는 북구가 유일했다.

이에 북구는 국·시비 포함 총 7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매곡의 일상과 이상이 담긴 길, 매일이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상권 네트워크 구성 및 마을자원 연계 사업을 통해 골목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점포 외관개선, 도로정비, 조형물·경관조명 설치로 골

목상권 경쟁력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사업은 95개 점포로 구성된 매곡동 골목형상점가상인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구가 협력하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관내 매곡동 골목상권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고 앞으로도 자영업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713개 점포가 참여한 가운데 ▲전남대후문 ▲황계 ▲용봉지구 ▲매곡동 등 4개의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구성돼 민·관 협업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기만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